

세기의 정사대전, 미국 정계요인이 파룬궁을 지지하다

[명혜망] 올해 7월 20일은 현세기의 신앙자유 전쟁 20주년 기념일이자 파룬궁 수련생의 반박해 20주년 기념일이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은 수많은 반박해 기념활동을 펼쳤다. 이 특수한 시각에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정계요인은 현지 파룬궁 수련생의 대형 집회에 참석하거나 지지 서한을 보내거나, 각종 회의에서 파룬궁 수련생과 중국 민중의 신앙자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상황은 파룬궁 수련생이 20년을 하루같이 박해에 반대하고, 진(真), 선(善), 인(忍)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을 견지한 노력이 결실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파룬궁 진상은 날이 갈수록 각종 고위층 인사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 이번 세기 최대의 정사대결 중에서 정의가 사악을 이기는 과정은 이미 최후의 단계에 진입했다.



2019년 7월 17일 오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중국 출신 파룬궁 수련생 장위화 씨와 악수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파룬궁 수련생 접견해 직접 상황 청취

2019년 7월 17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17개 국가의 종교박해 생존자 27명을 만났다. 그중에는 중국 장쑤성 난징시의 파룬궁 수련생 장위화(张玉华) 씨도 있었다. 이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중공의 박해를 받은 파룬궁 수련생과 처음으로 대면해 박해의 자세한 사정을 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종교박해 생존자 27명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받은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원히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중국 종교자유 운동가를 접견하다

2019년 8월 5일, 미국 부통령 펜스는 부통령 사무실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포함된 중국 종교자유 운동가 4명을 만났다. 그 4명은 모두 국제 종교자유 원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만난 4명 중 한 명인 파룬궁 수련생 대표 천제푸(陈杰夫)는 회견 중에 펜스 부통령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장장 2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명혜망의 조사 확인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생 4천여 명이 박해로 사망했지만, 중공의 정보 봉쇄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몇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생체 장기적출도 약 20년 동안 진행돼 희생자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파룬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종교자유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펜스는 중공이 각종 종교 신앙을 줄곧 박해했지만, “신앙이 중국 도처에서 꽃피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말했다. “(미중 무역) 담판이 어떻든지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미국인은 신앙을 가진 중국의 모든 인민과 확고하게 함께 할 것입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자 명단을 미국 국무부에 제출하다

[명혜망] 2019년 5월, 미국 국무부 관리가 일부 종교 및 신앙 단체에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은 미국이 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인권과 종교 박해자에 대해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여행, 친척 방문, 비즈니스 등)가 포함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미 비자가 발급된 사람(영주권 보유자 포함)도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리는 또 미국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2019년 7월, 파룬궁 수련생들은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惡人)명단을 미국 국무부에 제출했다. 국무부 관리는 명단을 접수했으며, 명단에 오른 사람을 심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덧붙여 고지했다.

1. 최근 중공의 많은 사람이 인권 박해로 인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모두 파룬궁 박해 때문이었다.
 2. 미국 국무부 관리는 명혜망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으며, 정보의 출처로 인용할 수 있다.
 3. 국무부 관리는 또 인권 박해자의 배우자, 자녀 역시 처벌 대상임을 밝힌다.
 4.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악행(고문, 구타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자행한 조직의 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5. 현재 28개 국가가 미국과 유사한 ‘마그니츠키법’ 제정, 그리고 인권 박해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해외 자산 동결 등을 이미 완료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 과거 20년의 박해 중에 중공의 엄중한 박



해 범죄행위에 가담한 각지, 각류, 각급 인원이 몹시 많지만, 파룬궁 수련생은 끊임없이 여러 조로 나누어 박해자 명단을 제출할 것이다.

대륙의 모든 관련 인원이 잘못을 거울삼아 박해 정책에 협조하거나 집행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이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에서 정착, 학습, 여행, 장사하는 길을 막지 않기를 희망한다.

탈당한 정법위 서기, “말보다 행동으로 사부님께 보답할 것”

[베이징 투고] 내가 한번은 베이징에 일을 보러 온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허난 모시 정법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 명은 서기, 한 명은 과장이었다. 내가 물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파룬궁 탄압이 아직도 엄중합니까?” 서기가 말했다. “당연하죠. 텐안면에 가서 분신자살을 했는데, 탄압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나는 그들이 진상을 모르고, 파룬궁은 ○교가 아니며, 텐안면 분신자살이 가짜라고 말했다. 서기가 즉시 내 말을 끊고 말했다. “더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데, 더 말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요.” 내가 말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마친 다음에 신고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장이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파룬궁(수련생)인데, 당신은 가부좌를 할 줄 알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한 시간 동안 하는 걸 보여 줘요.” 나는 하겠다고 나는 그들 옆에서(패션타운 바깥 화단 가장자리에 앉아) 가부좌를 하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결가부좌를 하는데, 두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두 손 엄지손가락 끝을 마주 대어 결인을 합니다. 여러분이 분신자살 영상을 봤을 텐데, 그 왕진동은 군인처럼 땅에 앉아 있었고, 결인은 두 엄지손가락이 아래위로 겹쳐 있었죠.” 나는 또 그

들에게 동작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왕진동의 옷이 뒀는데,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음료수 병은 고온에서 타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았어요. 이 대사가극을 국제교육개발기구가 유엔 회의에서 폭로하고, 분신자살을 중공 정부가 조작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공 대표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변명을 못했고, 그 성명은 유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고, 내가 이어서 말했다. “2000년 공안부가 공통자 39호 문건으로 공포한 사교조직이 모두 14개였는데, 파룬궁은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도 모두가 가지고 있을 테니 꺼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1998년에 차오스가 이끄는 인대(人大) 퇴직 간부들이 파룬궁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연말에 중앙정치국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파룬궁이 ○교라는 말은 장쩌민이 프랑스에 갔을 때 인터뷰하는 기자한테 한 말인데, 이튿날 인민일보가 기사에서 파룬궁을 ○교라고 칭했고, 전국 매체가 한 목소리로 파룬궁을 헐뜯었어요. 누구의 말이든, 신문 기사든, 모두 법률이 아니고... 이른바 파룬궁이 ○교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나는 대략 40여 분 동안 말했다. 과장이 말했다. “빨리 다리를 내려놓으세요. 사복경찰이 오면 번거로워질 거예요.” 나는 다리를 내려놓고 말했다. “중공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게 됐어요.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식’ 단면에 ‘중공공산당 망(亡)’이라는 커다란 글자 여섯 개가 나타났는데, 이건 하늘의 뜻이에요. 중국인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3퇴)해야만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목숨을 지키고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내가 빨리 ‘3퇴’하라고 권하자 그들은 통쾌하게 동의했다. 서기가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파룬궁을 없애는(박해하는) 일인데, 하지 않으면 시작해야 해요.” 나는 파룬궁 사부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이번에 베이징에 거저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파룬궁 사부님께서(큰 뜻에서) 여러분이야말로 엄중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다며, 행동으로(리홍쯔) 사부님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들이 잘 된 것이 정말 기뻐다.

제수 친구의 암이 사라지다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행운을 얻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사례는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제수 친구의 암이 사라지다

[산둥 투고] 2008년 어느 날, 제수씨의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놀라서 줄곧 울었다. 제수씨도 어쩔 수가 없어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빨리 책(파룬궁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을 찾아서 친구한테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딸의 친구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말해주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했다. 이어서 <전법륜>을 빌려주면서 파룬궁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 잘 읽고, 날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정성껏 외우라고 알려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암이 사라져 있었다.

한 노인의 감사

[장시 투고] 나는 장시성 송자(宋家)촌 사람이며, 올해(2019년) 89세다. 젊었을 때 공산당에 속아 입당을 했고, 그를 따라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다 늙어서 온몸에 병을 얻었다. 추운 날에는 수족이 얼음처럼 차가웠

고, 길을 걸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작년에 생질이 나에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했고, 파룬궁 진상 간행물 한 권을 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그 속에서 한 말이 모두 정말이며, 중공이 분명히 아주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질에게 가명으로 탈당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생질은 나에게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정성껏 외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나는 날마다 외웠다. 그렇게 반년을 넘게 외우자 기적이 발생했다! 나는 몸이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고, 병세가 분명히 호전된 것을 느꼈다. 나는 계속해서 외웠다. 올해 나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몸에 힘이 생겨 집안일을 할 수 있고 물 두 통을 짤 수 있다. 파룬따파는 정말 신기하다!

수십 년 된 나의 병을 고쳐주신 파룬궁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사람이 파룬궁 진상을 알고, 사람을 속이는 중공의 거짓말을 다시는 믿지 않기를 희망한다!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러 온 불법(佛法)이며, “찌싼런 하오, 파룬따파 하오”를 외우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영험하다!

‘텐안면 분신자살’은 조작극



- 파룬궁 책 속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면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동은 꼼짝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동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